

노틀담 아카데미에서의 창립 기념일, LA

코스펠드 노틀담 수녀회 1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올해는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 동창들이 노틀담 수녀회와 그들의 창설자들, 역사, 카리스마, 우리 학교 노틀담 아카데미를 경축하는 연례 기도식에 온라인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성녀 줄리,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님, 베르나르드 오버베르그 신부님의 위대한 유산이라 부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와 수녀님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는 68년간 노틀담 수녀였으며 40년간 노틀담 아카데미의 일부였던 메리 죠앤 술라바움 수녀에게 영예를 돌립니다. 메리 죠앤 수녀님은 올해 은퇴했는데 오늘은 수녀님과, 수녀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되어주었던 선물을 축하할 기회입니다."

메리 죠앤 수녀는 자신의 삶에서 묵주 기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게 묵주기도는 빛과 그림자와 수천개의 색을 띠는 삶을 드러내는 만화경같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이 묵주기도 안에서 펼쳐지듯이 나는 상상속에서 성경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시간을 거슬러 여정을 걷는다.” 줌을 통해 거의 300명의 참석자가 묵주기도를 했고, 뒤를 이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 호칭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 죠앤 수녀는 다정한 덕담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하며 로버트 랙스가 기도에 대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인 선을 행하는 방식이다...기도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좀 더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의미있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피어나며 흘러간다.”

이 날은 소녀들이 메리 죠앤 수녀를 개인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학교 앞뜰로 운전해 들어가는 가운데 긴 자동차 행렬의 퍼레이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녀들이 앞뜰을 가로질러 들어갈 때 모든 소녀들은 창립기념일 선물인 노틀담의 날 티셔츠와 메리 죠앤 수녀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드럼 스틱을 집어갈 수 있었습니다.